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shington 98134

Ke-Hi Oh - Publisher  
Sung-Hwi Pak - Editor  
(206) 362-4500

#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5





# 영미정

한국 최고의 궁중요리사  
드디어 영미정 주방에  
초빙되었음.

대표 조 영

84년1월1일부터

일본식 요리 개시

○ 최신식 완전 자동냉면기계 설비

○ 대 연회장 완비

○ 넓은 주차장 시설

(씨애틀 최대 규모와 격조높은 나이트 클럽)

★로스엔젤레스에서 대인기를 모은

대형가수 문희진양 출연★

※ 가족외식 ※ 친목회식 ※ 귀한손님접대 ※ 축하연등  
모임에 따라

10명에서 150명 400명 까지

한자리에 모실수 있습니다

**YOUNG ME RESTAURANT**  
**623-3112**

220 4th Ave So Seattle, WA 98104

7 DAYS A WEEK 11:00 AM 2:00 AM



## 한인회보

### 목차 (CONTENTS)

4. 권두언
6. 워싱턴주 한국의 날 선포문
7. 시애틀시 한국의 날 선포문
8. 『한국의 밤』과 우리의 Image
10. 신임 총영사 프로필, 생활강좌 "엘러지 치료법"
11. 신임 총영사에게 바란다
12. 시애틀 한인회 결성을 회고하며
15. 치과의사에게 문의하세요
16. 청소년 (중·고생) Camp 안내
17. **Camp Casey Schedule**
18. 한인회 활동및 소식  
『한국의 날』행사 성료, 정기임원회의  
신임 총영사 인사
19. 교포사회 소식 및 동정  
총영사 한인회관 및 한글학교 방문  
페드럴웨이 축구회원모집  
정매인 전도사 성가의 밤  
우체국 시험을 위한 강의
20. 한국 선교 100주년의 회고와 그 전망
22. 한인회비 내신분들  
한국의 날 행사에 찬조하신 분들
23. 한국의 날 행사 경비내역
24. 1984년도 모국 하계학교 학생모집
25. 유년의 바람
26. 영문 페이지 **Interracial Marriage Appeared**
30. **Proclamation State Of Washington**
31. **Proclamation City Of Seattle**
32. 그림

# 『권두언』

## 우리의 위치

=====

우리나라는 1882년 5월22일 인천항에서 한미관계를 공식적으로 맺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미국은 한국과의 교역을 위해서 접촉을 시도한바 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1984년 친선 사절단을 이끌고 아시아 국가를 순방하던 로버트(Edmond Roberts)는 일본과 교역을 하게되면 한국과도 교역이 가능할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미국무장관에게 보고된바 있으며 1845년도에는 미국 하원 해사위원장인 Zodoe Pratt 이 일본과 한국에 정식 교역 관계를 고섭하기위한 사절단 파견 결의안을 제출한바 등이있다. 이와같은 일련의 외교적 접촉시도는 양국간의 관심이 오래전부터 싹터왔다고 볼수있다. 1882년 한국과 미국간의 외교통상 관계를 공식 합의한 한미수호 통상조약 체결은 한국의 외교사상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는 2년전 한미수호 100주년을 맞는 다채로운 행사를 국내외적으로 치른 기억이있다. 그러나 한미수호 100여년을 지나는동안 변천하는 국내외적 정세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 대한( )원조 관계및 경제협력 교류와 재미교포 증가율을 잠깐 살펴본다면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10년간 미국 총인구 증가율 11.4%에 비해서 한국 계의 증가율은 412.8%로서 급격한 팽창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내의 한국 커뮤니티도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 경제, 교육분야에서의 영향력을 무시할수는 없다. 경제면에 있어서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44억달러 상당의 경제 원조를 제공하여 주었고 한국의 총 해외 차관의 31%를 주었으며 한국은 미국의 주요수출 대상국이며 수출액면으로 보아 12위에 해당하며 미국은 한국 수출의 1/3을 차지하는 경제교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국민의 75%정도가 한미동맹 관계가 보다 평등한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현실정에서 1984년 4월28일 워싱턴주 "한국의날" 행사에서 이지역의 최고 행정 책임자인 John Spellmen 주지사와의 시애틀 및 타코마시장등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걸쳐 각계각층의 국내외 인사들과 고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베푼 연회(Banquet)를 성공적으로 치루게 되는데 대해 협조와 찬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분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500여명을 수용할수 있는 대연회장을 꽉 메웠으며 예약된 이외에도 많은 내빈들이 오셔서 수십석의 좌석을 추가로 설치하는가 하면 10시 가까이 되어서도 참석하여 주시는 성의와 행사의 의의를 새겨 주시는 국내외 인사들이 다수 있음은 조국의 국력신장과 해외동포들의 지위 상승으로 국제경쟁 대열에 당당히 서 있음을 볼수있다. 특히 한미 양국간의 상호이해와 유대관계가 날로 돈독하게 되어가고 있으며 더욱 굳건하게 되기를 상호 힘쓰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행사의 준비 및 진행, 연회무드(mood)와 사고면 등에서 우리는 문화민족으로서 성숙된 모습과 고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한미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야하고 우리 한인사회는 더욱 힘을 키워 터전을 굳건히 하여 우리의 2세들에게 물려줄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재미한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냉담한 비판을 하고 있다. 우리들의 권익을 외부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변할 지역적 기구나 전미주 지역을 통괄하는 기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주지역 한인회에 회비를 내고 가입한 회원이 100명도 못된다고 하며 한인회를 재건하려는 수차례의 시도가 상반된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

간의 주도권 쟁탈로 인해서 무산되며 회장 입후보자 출마비를 1만5천 달러씩 내고 선거전을 벌인것을 한국의 자유당 정권 말기의 혼돈된 선거 양상으로까지 표현하면서 고차원의 목표를 위해서 규칙을 준수하고 임을 합치는 원칙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는 행동도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와 국가, 개인과 개인이 미국을 접촉하고 친교하여 얻은 많은 경험과 지식과 이해력을 총동원하여 진정한 우의가 고환되는 유대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상호이익에 바탕을 두는 동반자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것이다.

## 로 명 재 산 부 인 과

### 美 산부인과 학회 인정 전문의

- 임신·분만
- 피임상담
- 복강경 피임수술
- 각종 부인병수술
- 일반 부인병진료
- 불임조사 및 불임증 치료
- 질 성형수술
- Sexual counseling

Auburn office

Federal way office

833-2580

927-8440

워싱턴주의 한국의 날 선포문

본인 존 스펠만 워싱턴주 지사는 1984년 4월 28일 토요일을 한국의 날로  
정히 선포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오래전인 1882년 5월 22일 수호조약이후 오늘에 이  
르기까지 양국의 우호증진과 협력관계를 자유와 평화의 사도로서 지속하여 왔  
음을 상기코져 합니다.

특히 1977년 이후 워싱턴주는 갈목할만큼 비중을 찾아한 무역 상대국으로  
발전 했습니다. 이는 서울 - 시애틀간의 항공 여객기 직통 운항과 더불어 어  
러사업의 유통과, 갈목할만큼 증가 되어지고 있는 무역량, 또한 상호 관광여행의  
증가 등입니다.

이에 워싱턴주는 우정을 두터히 하녀 모든 공동 관심사와 이에 준하는 어  
러 사업 분야에 적극 협력하여 줄것입니다.

아울러 성장하여 지고있는 한인지역 사회와 더욱 우의를 굳게 지속함에  
워싱턴주의 모든 시민은 다함께 참여하여 줄것을 선포합니다.

1984년 4월 28일

워싱턴주 지사 존 스펠만

시애틀 시의 한국의 날 선포문

본인 찰스 로이어 시애틀 시장은 1984년 4월 28일을 한국의 날로 선포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100여년이 넘는 깊숙한 친분 관계를 맺고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근래의 한국과의 무역관계 증대는 우리 시애틀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일면  
을 찾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 국민은 인간 존엄성의 가치에 대하여 깊이 동참하고 있으며 1만여명  
이 넘는 시애틀 거주 한국인은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등에 걸쳐 중요한 지역사  
회의 일원으로서 어느 이민 국민들보다 눈부신 활약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과 더불어 상호 관심사와 우호증진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것이며  
우리 시애틀시에 꼭 있어야할 중요한 일원임에 이에 모든 시민과 더불어 엄숙히  
한국의 날을 선포합니다.

1984년 4월 28일

시애틀 시장 찰스 로이어

## 『한국의 밤』과 우리의 Image

한만섭

우리집 거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면 Mercer Island 넘어로 코롬비아센터 빌딩이 솟아 오르는 것이 보인다. 이 건물은 70층을 넘는 고층빌딩으로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최고로 높을뿐만 아니라 전미주중 시카고 서부에서는 제일 높은 건물이 되겠다. 나는 이 코롬비아센터가 솟아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우리고국이 이른 "한강변의 기적"을 연상하게 된다. 마침내 한강변의 기적이 시애틀 한복판에 떠오르는 것만 같다. 이 빌딩에 소요되는 모든 강철구조물을 우리고국에서 생산 가공되어 이곳 건설업자에게 제공해 오고 있다. 우리고국의 노무자들이 이 강철물에 뚫은 구멍만해도 수십만개를 넘는 것으로 안다. 그 구멍구멍마다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의 흘리는 땀방울을 연상하게 된다.

지난 3.1 절 기념식 때 우리 한인회에서 상영한 철인(鐵人)이라는 영화는 나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다. 나는 이 "철인"을 코롬비아센터와 관련시켜 본다. 그 영화는 거대한 철 구조물 Docket를 만드는 철노무자들의 노고를 그리고 있고, 계약기간을 맞추기 위해 철야작업으로 피땀을 흘리는 사원의 노고, 처가 운명하는데도 집에 못가는 한 노무자의 비극등등, 나는 이 영화에서 비록 연극화한 한 영화의 장면이기는 하지만 한강변의 기적이 그저 누워서 떡반아 먹기 식으로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Message 를 받았다. 나는 코롬비아센터를 볼 때마다 우리고국이 이곳 미국 땅에 세우는 한국의 Image 를 생각하게 된다. 이번 우리 한인회에서는 세번째로 "한국의 밤" 행사를 치루었다. 나는 이번 한국의 밤 행사는 우리 한인 Community의 성숙성을 이곳 미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반영시켰다고 본다. 이 일을 준비한 여러 이사,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나는 "한국의 밤"의 의의는 코롬비아 센터가 이루는 Image

와 같다고 생각한다. 코롬비아 센터가 고국이 이룩하는 한국의 Image build-up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밤 행사는 우리 Community 가 이곳 미국 사회에 비치는 우리의 Image build-up이다. 우리는 미국 정부 요로에 우리 한인 Community 가 존재하고 있음과, 우리의 Professionals 과 Labors 들이 미국 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뿐만 아니라 전통있는 Culture 를 이땅에 가져왔다고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한국의 밤"의 의의를 되새겨 본다. 다시말해서 한국의 밤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Image를 이곳에 충분히 Show-off 하는 기회를 만드는데 참다운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의 좋은 Image를 이곳 미국 사회에 반영 시키므로 해서 미국 사회가 우리에게 베풀수 있는 많은 혜택을 우리가 찾겠다는 Message 를 전하는데도 또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강변의 기적은 하루 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우리는 다안다. 우리의 Image build-up도 하루 저녁의 "한국의 밤" 행사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다. 나는 금년 한국의 밤에 김영원 U.N. 대사가 말한 한 구절을 매우 뜻있게 들었다. 그는 말하기를 "미국이 이때까지 한국을 많이 원조했는데, 그 원조 총금액이 지난 일년간 한미 교역 총액의 반도 안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다시말해서 한국이 우리의 자조력으로 한강변의 기적을 이룩했다는 Message 를 전해준다. 코롬비아 센터에 쓰이는 강철도 우리의 자조력으로 세운 공장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 이곳에 세우려는 우리 Community 의 Image build-up 도 우리의 자조력으로 이루어져야만 하겠다. 우리의 자조력으로 지은 한인회관에서 "한국의 밤" 행사를 가진다면 우리의

Community Image 가 미국 사회에 더욱 빛나게 반영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Image build-up 은 한, 두 사람의 독지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겠고 여러 교포 개개인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Grass-root support 가 절대 필요하다.

나는 5년전 한국 방문 중 8.15 광복절을 서울서 맞이했다. 그날 새벽 일찍 창밖에서 똑딱거리는 소리에 눈을 깬다. 밖을 내다보니 집짓는 벽돌공이 일하고 있어 내가 자던 집주부에게 이곳에 8.15 Holiday 도 없느냐고 물었더니 "저 일꾼들은 비가 오는 날만이 Holiday 입니다"라고 했다. 한강변의 기적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느꼈다. 우리고국의 시민들이 Holiday 도 없이 돈벌고 그들이 세금낸 돈으로 우리의 한인회관을 지을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우리는 이곳 미국 땅의 보다 나은 환경속에서 Holiday 도 좀 즐기면서 돈을 번다. 나는 우리의 자조력으로 지을 회관을 통해 Visible Image 를 이룩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잘 죽으면 이름 석자를 남긴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이 큰 땅에 와서 회관 하나쯤 지어 그곳에 우리의 이름 석자 정도라도 남긴다면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가 남긴 Image 속에서 저들의 할아버지 이름이라도 찾아 볼 것이 아니겠는가.

끝으로 이번 한국의 밤을 통해 내가 가장 기뻐던 일은 2년전 우리 한인 사회에서 "내가 더 잘 하겠다"는 선의의 Competition 이 너무 과열 되었던 사실이 이제 좀 냉각 되어가는 것을 본 일이다. 아량을 보여주는 여러 교포님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한국의 밤" Entertainment Program 으로 우리 Image build-up 에 협조하신 분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필자: 현재 보잉 회사에서 공기역학 기사로  
767 설계부에서 근무 중

### 자니 전 파 사

비디오 TV 시계 카메라

### 전문 수리

전화 241-5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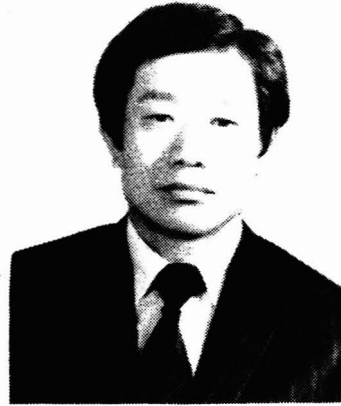
(현대식품 옆)

### 제일 음악 학원

- 시애틀 최초로 개원, 신학수 10명 1개월 무료지도(월 4회)!! 자녀 교육?
- 피아노, 각종악기, 성악개인지도.
- 성인키타-초보자 단기완성
- 생활음악, 복음성가, 교회 반주자를 위한 특별지도
- 완벽한 지도와 유능한 교수진(한·미인)
- 출장지도, 교통 편의 가능함.

367-2273 (FOR-CARE)  
3102 NE 145 St. Seattle, WA 98155

신임 안세훈총영사 프로필



1934년 서울 태생  
부인과 1남 2녀  
운동(축구) 및 독서 취미

- 1957.2. 연대 정의과졸
- 1972.3. 필리핀 마닐라 아해네오 대학교 정치석사 학위과정수료
- 1957.11. 외무부 공무원 발령이후
- 1963.9. 주일대사관 3등서기관 및 부영사 한일회담 한국사절단의 실무주역
- 1969.4. 주 필리핀 대사관 2등서기관 및 영사
- 1974.11. 주 캐나다 대사관 참사관 겸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대회 실무주관
- 1977.4. 및 1977.9. 주 싱가포르 대사관 참사관 및 홍콩 총영사관 참사관등 역임
- 1981.1.-1984.4. 월말까지 외무부 여권 관리과 및 감사관 근무.

생활강좌 (엘러지 치료법)

강사 이상구 박사

엘러지는 요즘은 미국 시민들의 건강문제중의 큰 관심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성을 감안하여 한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엘러지요법에 관해 전문가이신 이상구 박사의 강좌를 교민 여러분들께서 들으실수 있도록 준비하였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개별 전강상담도 하실 수 있음.

일시 : 1984. 6. 28 오후 7:30-9:00  
(불치병들의 정체를 그 증가이유)  
1984. 6. 29 오후 7:30-9:00  
(과연 질병과 음식물과는 관계가 있는가)  
장소 : 현 한인회 강당  
◎ 약력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엘러지 전문의 수료  
현 Weimar Institute (Staff)

신임 총영사에게 바란다

김동진목사

시애틀 주재 한국총영사관의 연혁은 그다지 길지가 않다고 본다. 길게잡아 일곱돌이요 짧게잡으면 여섯살 안팎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한다. 이 짧은 기간동안 이번이 세번째의 신임총영사를 맞이한셈이다. 그간 공관측과 교민사회와의 불화가 전혀 없었던것은 아니다. 그래도 별 대과없이 그때그때 잘 선처되어 오늘에 이르렀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필자는 공관장이 바뀔때마다 그저 "또 새 얼굴로 바뀌었군"하는 정도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을려고 하고 싶지는 않다. 그 이유는 나라없는 백성이 얼마나 설움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뼈저린 아픔을 아 세아인이라 하더라도 나라를 잃은 얼남인들과 우리네와를 제3국에서 비교할때 더욱 절실히 느껴져 제 나라를 갖고있는 국민의 주권의식이 얼마나 귀중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관이란 한마디로 한국의 정부를 몇 백만분의 일로 축소시킨 축소판이라 하겠다. 규모가 크던 적던 한국정부의 주권행세를 이 기관을 통해 대행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는 말이다. 이런점에서 공관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 단주요 더 나아가 한국을 이 나라에 심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 보아도 틀림이 없다고 본다. 물론 이일이 어찌 공관에게만 있으려마는 그 때도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과감하게 실행해 나아가는분은 역시 공관장의 크나큰 임무라 생각할때 그 임무가 중차대함을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교민들이 총영사관에 대해 기대하는바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도 좋을가? 교민 한사람으로서 필자는 꼭 한가지만을 언급코저 한다. 이것은 곧 공관이 이 나라(지역)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한국의 주권행사가 이루어져 있다는 계몽내지는 홍보의 대책이 좀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와 주었으면 한다. 이것은 다른말로 말해서 한국인의 긍지를 어떻게 하면 지닐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유일한 길로서 우선은 물론 항상 조국의 소식이 이 나라에 밝게 전해질때만 가능한 일이다. 마치 햇빛과 비를 나무의 잎들이 맞을때 그 잎들이 푸르듯이 우리는 우리나라의 부리가 매마르지 않도록 근원적인 차원에서 국가라는 전체성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개체성을 어하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아름다운 조명으로 이 나라에 어떻게 비칠수 있을가하는 문제를 다같이 염려 할때에만 기대할수 있다는 말이다. 그밖에 교민사회의 육성책이라든지 교민들의 권익옹호등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뛰니뛰니해도 교민 한사람이 제구실을 하는 정신적인 저주가 이런 차원에서 다져져야 한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이다. 끝으로 신임 총영사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어려운 난제의 주문을 우리 모두의 공동과제라 생각하여 책임기간동안 큰 대성이 있기를 기원해 마지 않는다. 끝

**센츄리부동산**  
**(206) 223-8949**  
400 BOREN AVE. SEATTLE, WA.  
Sam Yun : 878-3647 이양남 : 363-0443  
Susan Kim : 392-8535 May Lee : 881-6274  
고유진 : 771-3229 김일영 : 874-4452  
조인 : 364-5966  
Grocery : (1) 가격 - 155,000+제고 3만(24HR) 10만다운, 월매상 45,000이상, 월손익 10,000이상  
(2) 가격 - 8만+제고 3만다운, 월매상 15,000  
(3) 가격 - 17만+제고 10만 월매상 85,000, 10만다운  
(4) 가격 - 5만+제고 25,000다운, 월매상 10,000  
세탁소 : (1) 가격 - 75,000 - 35,000다운 년매상 72,000 - Coin+Agency 전망최고  
Coffee Shop (주 5일):  
(1) 가격 - 175,000+제고 75,000다운, 일매상 850이상  
DELI & 샌드위치:  
(1) 가격 - 16만+제고 월매상 31,000 8만다운, 위치전망좋은  
MOTEL (34U):  
(1) 가격 - 85만, 20만다운, 년매상 21만불  
TAVERN 빌딩+2아파트:  
(1) 가격 - 119,000 4만다운, Rental 수입 1,100  
Grocery Store (건물포함):  
(1) 가격 - 26만+제고 월매상 25,000-3만, 6만다운 Corner Lot 임

**조병규 치과**  
시애틀  
월, 화, 목, 토(9시~6시)  
**367-5570**  
**776-8512**  
페더럴웨이  
수, 금(10시7시)  
**838-3180** 시애틀  
**927-4996** 타코마

**50년 전통의 Snohomish Bakery**  
※ 생일 ※ 결혼 ※ 회갑 ※ 축하케익 ※ 무료배달  
※ 다과 ※ 도나스 ※ 단체주문배수  
스노호미쉬 (206) 568-2020  
에버렛 (206) 258-1444  
Snohomish, WA. 98290

## 역대 한인회장 회고

### "우리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결성을 회고하며"

초대 한인회장 이창희선생님 미망인 김간난여사 기고

오늘 우리 시애틀 한인회를 처음 시작하던 때를 가만히 돌아볼 때 그때의 기쁨과 감격, 정열은 이루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께 "첫사랑을 찾자"고 속삭이고 싶습니다.

1948년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 총수는 가족 2, 학생 5,6명, 중국타운에 거주하는(노동이민) 할아버지 5,6인 아이들까지 20여명에 불과 하였습니다. 두 가족이 이사를 간후 우리만 남았을 때 "주님 시애틀에 열가족, 아니 다섯가족만 보내 주세요"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던 때가 어제 같습니다.

1967년 우리 한인회가 발족할 당시에는 가족이 30명, 학생 15명, 국제 결혼한분이 20명 총 200명 정도였습니다. 1984년 현재 시애틀에만 15,000명, 워싱턴주 전체에 30,000명이니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번성하리라"는 축복이 시애틀에 사는 한국 민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믿습니다.

#### 1. 한인회 결성

1967년 12월15일 워싱턴주 대학 강당에서 이선복 선생 사회로 회원간의 친목, 협조를 도모하며 한인들의 복리와 권익을 옹호하며, 대외적 친선에 기여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회칙을 통과 시킨후 임원으로 (고)이창희, 서두수, 최계순, 전계상, 이선복 제 선생이 선출 되었습니다. 이 모임에는 많은 고민, 학생들과 내빈으로 상항 주미 한국총영사 정도순 씨, "손천" "거제"함을(해군함정) 인수받는 한국 해병장병들도 참석해 주셔서 더욱 감격적이었습니다.

#### 2. 한인회보 창간호

1968년 6월25일 한인회보 창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다음에 창간사와 그의 기사중 인상적인 구절들을 써 봅니다.

"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는 조국을 떠나 수만리 하향에와서 살게 되었다. 때로는 옛일이 그리워 옛노래를 부르고 싶고, 춤을 추어 보고도 싶고 그들을 붙들고 통사정하고 싶어한다. 이것은 어느 한사람의 심정이 아니라 우리들 공동의 경향이다. 다행히 시애틀에는 여러 백명의 한인 남녀가 살고있다. 우리는 서로 우리의 괴로움, 외로움, 슬픔을 외로하고 외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모이자! 뭉치자! 낙삼말고 용기를내자! 이러한 의도에서 우선 만날수 있는 이들이 모여서 시애틀 한인회를 결성하였다"

"뿌리가 넓게 퍼져야 그 나무가 한해도 수해도 이겨낼수 있듯이 우리민족이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서 넓게,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이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사회적 모임에서 서로 만나면 반가운 동포를 볼때마다 반가움을 금치 못한다. 늘어나고 자라나는 우리민족, 서로 만나면 반가운 동시에 따라오는 책임감 또한 중하다"

"우리 한인회는 일부 인사들만의 단체가 아니며 회비를 낸 사람만이 권한을 가진 회가 아니다. 이 편협성, 부패성에 빠지지 않도록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와서 돕기를 바라며 필요할때면 당당한 혁명이라도 해서 참되고 진실한 기관이 되도록 힘써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해서 과거가 현재에 살고 미래에 쫓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일에만 전충이 값진것이된다. 민족은 시시각각 지난날을 냉엄히 보살피면서 앞날을 큰 안목으로 내다보는 총명에 그 발전이 기대되는 까닭으로 전충은 잘 음미되어야 한다"

"그런데 회관을 짓거나 사려면 혹 우리중에 큰 재산가가 있어서 거액을 기부해 주셨으면 하는 꿈도 꾸어 보았지만, 우리중에는 없기도 하려니와 우리는 그런 요행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적은힘과 힘을 뭉쳐서 이룩하는 것이라야 귀한줄도 알고 귀히 쓰고 보전하기도 할것이다. 또 많이 낸 사람이 적게 낸 사람보다 무슨 특권이나 영예를 가짐도 절대 금물이다"

#### 3. 초대 한인회 지도자와 고민

##### (가) 양보하는 모습

"왜 회장이 되셨지요?" 하는 질문에 "내 행동이 느려서...." "선생님이 굳이 양보 하셔서...." 라는 대답은 우리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후에도 서로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 양보하여 모든일을 화평중에 기쁨으로 봉사 하셨던 여러가지 모습을 기억합니다.

##### (나) 고민 전체가 한 마음

1) 한인회 결성후 링컨공원에서 갖은 첫번째 광복절 기념 피크닉은 지금까지 머리 속에 생생합니다. 그날은 시애틀에 드문 소나기가 대단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는 빗속에 고민, 학생 모두가 참석하여 비를 맞으며 처음으로 우리들만의 우렁찬 애국가를 봉창하며 식을 엄숙히 마쳤습니다. 국기가 비에 젖을새라 잠바를 벗어 싸고 어른들은 속옷까지 다 젖었습니다. 숯불이 피워지지않아 구어지지 않은 갈비를 먹으며 비가 다시 쏟아지면 어른과 어린이들이 방가로로 들어가고.... 이렇게 고생하는 바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뭉쳤고 친근감이 친 형제인들 어이 이에서 더하랴! 우리는 두고두고 그때가 그림자고 만나면 인사를 하곤 하였습니다.

2) 아리랑 파티에는 새로운 우리 거래들이 많이 오십니다. 어디서 빈듯한 분이 내 손을 꼭 잡으며 "오래 못 뵈었습니다. 그동안 안녕 하셨습니까?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하며 어버이나 본듯 반가와 합니다. 우리는 이때마다 서로 핏줄이 흥함을 느낍니다.

3) 우리 고민 여성들은 남자분들 못지않게 진실하게 봉사하며 어디나 참여 하였습니다. 서, 전, 김, 정, 리, 송사모님, 김진숙, 조혜숙 여사들이었습니다.

4) 다음은 학생회에서 적극협력 봉사해 주신것입니다. 시험중이라도 회보 등사로 밤을 새우기도 하며 회관이 없는고로 회의때마다 장소주선, 장식등을 해주시곤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지역 유지의 한분이 되신 이병원, 구범희 학생회장 때였습니다. 그외의 여러 얼굴들이 나라날때마다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와 축복을 기원합니다.

##### (다) 전남 한재 구제금 모금

죽석 모금이었으나 \$140.00 이 모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적은 돈이었으나 그 자리에 앉은 고민, 학생 모두 빠지지않고 참여하여 주머니를 비었습니다. 참으로 정성 어린 모금이었습니다.

##### (라) 한인회보에 흐르는 정신

회보가 실리는 날마다 돌아온 전화 반기에 바빴습니다. 회보 발간을 감사하며, 을

며, 웃으며 같은 심정으로 호소하며 자기가 고민을 위하여 할일이 무엇인가 알려 달라는 전화들이었습니다. 한인회보를 기다리는 마음, 회보에 실린 기사 구절구절을 마음으로 부러 받아드려 글쓰는 이와 한인회와 고민이 혼신일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초대 한인회와 그때의 인상 깊었던 일들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개인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한인회도 17년을 지내는 동안 몇번이고 마음아픈 시련도 있었으나 지나고보니 우리민족이 미국이란 신천지에 뿌리박고 정착, 발전하는 과정에 있을수 있들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애틀은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태평양 퓨젯(Puget) 해안에 접해있는 제일 큰 도시이며, 기후 좋고, 살기 좋고, 호수와 상록수에 쌓여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봄이오면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고 냇이, 진달래에 이어 고사리 싹이 돋고 여름이면 조개, 굴, 미역, 청어, 송이버섯이 있고 단풍의 계절인 가을을 지나 겨울이면 낙지, 동태, 연어등이 있습니다. 과거의 국제 산년파리에 잡채와 약식을 해두고 이듬없이 구석에 끼어있던 초라하고 쓸쓸했던 수많은 세월을 지나 이제는 태극기 날리는 시애틀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엄연히 존재하여 우리들의 어깨를 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복지를 허락 하심과같이 가나안 복지같은 시애틀을 우리들의 제2의 고향으로 허락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모두 마음 가다듬고 너도나도 한인회에 참여하여 서로 관용하며 협조 봉사하여 한인회를 발전 시킵시다. 다른나라와같이 서로 협조적이며 진실하고 건실하며 믿음직한 민족의 빛을 비추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존을 위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2세, 3세에게 한민족의 긍지를 갖고 한국-미국 국민으로(Korean American) 한국, 미국 또 더 나아가 온 인류에 기여할수있는 문호를 넓게 여십시오.

## 치과의 사에게 문의하세요

이영주

문 : 우리학교의 외생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아침에 이를 닦을때에 혀도 닦아 주는것이 매우 중요 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맞는 말씀인지요 ?

답 : 이를 닦을때 혀도 칫솔로 닦으면 입 냄새를 없애는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구강외생의 연구자들은 혀를 닦아 줌으로써 우리 입에 유해한 균들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를 잘 닦는것이 구강외생을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입니다.

문 : 사람들이 혹 말하기를 사과를 먹으면 치아가 자동적으로 씻긴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인지요 ?

답 :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여겨질뿐 아니라 사과에는 자연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당은 캔디나 다른 사탕과 마찬가지로 치아의 플렉(치아의 표면에 붙어있는 점적점적하고 색이 없는 균의막)과 작용하면 산이 생성되어 치아의 제일 겉층을 이루고 있는 에나멜층을 침식하여 충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문 : 만일 갓난 아이의 이가 일찍나면 그 유아는 건강한 이를 가지게 되는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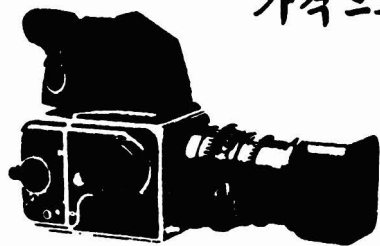
답 : 이가 일찍 난다고 해서 꼭 건강한 이를 가지게 된다는 아무런 증거는 없습니다. 이가 일찍난 어린아이나 늦게 이가난 어린아이나 관계없이 구강내에 있는 병(충치나 잇몸병)에 걸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 빠리난 어린아이의 부모들은 그만큼 빨리 어린아이의 구강관리를 시작하셔야 된다는말이 되겠군요. 유치(혹은 젖니라고도 함)가 나기전이라도 하루에 한번씩 부드러운 헌겹이나 소독된 거즈로 어린아이의 잇몸을 닦아주는것도 구강외생에 대단히 좋습니다.

문 : 베이킹소다(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도 튜브에 들어있는 보통 치약과 같이 좋은지 혹은 이가 더 희게 닦이는지요 ?

답 : 베이킹소다도 이를 닦는 세척제로서의 가치는 있으나 이를 더 희게는 하지 못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쓰일 경우에는 베이킹소다에 후로라이드(Fluoride)가 들어있지 않다는것이 보통 치약과 비교해서 단점이 되겠습니다. 후로라이드는 치약의 제일 겉 껍질을 이루고있는 에나멜층과 작용하여 충치발생에 큰 저항작용을 합니다. 꼭 베이킹소다를 치아 세척제로 쓰신다면, 치아를 닦은후에 후로라이드가 들어있는 마우스 워시(Mouth Wash)로 옹어려를 하여 주시면 보통 치약을 쓰시는것과 같은 효과를 내겠군요.

## KO'S 사진관 & VIDEO

최신 장비와 기술로 여러분을 저렴한  
가격으로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각종 기념촬영 사진전문>

- ◎백일, 돌, 결혼, 회갑, 각종단체
- ◎여권 및 시민권을 사진
- ◎필립현상 및 인화
- ◎출장 촬영 환영

<VIDEO PRODUCTIONS>

- ◎비디오 출장 촬영 환영
- ◎18 m/m 및 8 m/m 영화촬영
- ◎비디오 테이프 편집 영상, 음향, 제작, 카피
- ◎한국영화, 비디오 카셀 테이프 대여

전화 (206) 775-0896 대표 고 광 준

4812 225th Pl SW Mountlake Terrace, WA 98043

정문언보험 FARMERS INSURANCE  
9525 AURORA AVE. N.  
SEATTLE, WA 98103  
(206) 523-9111 • (206) 588-0611

황수철 부동산  
NORTHEND 및 BELLEVUE 지역

522 - 7566

# 청소년 Camp 안내문

= Camp Casey에서 =

이미 공고한바와 같이 Camp Casey 에서 중·고등학생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Ferry 로 Widby 섬에 도착하여 시원한 바다, 아름다운 숲, 푸른 운동장, 깨끗한 기숙사, 전적지등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Camp Casey 에서 중·고등학생 여러분을 위하여 모임을 갖게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다르더라도 같은 민족, 같은 얼, 같은문화를 지닌 우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제를 나누고 우타의것도 배우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 Camp 를 통한 정신적, 사회적 훈련으로 보다 성숙한 10대의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희망찬 내일의 주인공이 될 중·고등학생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랍니다.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회 장 오 계 희  
청년부장 윤 흥 남

1. 주제 : "하면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를 키우는 목적)
2. 프로그램 : 위의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 활동, 오락, 영화상영, 경기등 다양한활동
3. 일시 : 1984년 6월 28일~30일 (2박 3일)
4. 장소 : - Camp Casey -
  - ① Whidby섬에 소재하며, 시애틀에서 약 2시간 요하는 거리의 해변가 지점에 위치
  - ② 부엌, 식당, 사우어, 침실, 활동실이 구비된 45명 수용의 기숙사 2개가 있으며 참가자는 이 기숙사에 유하게 됨.
5. 참가비용 : 일인당 \$ 30.00
  1. 왕복 차비
  2. 2박 3일의 식비와 기숙사비
  3. 모든 교육활동 및 오락 참여비
6. 참가범위 : ①중·고등학교 학생 (7-12th 학생들)  
②100명을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제한함.
7. 신청요령 : 한인회의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신청함.  
362-4500 (한인회), 488-7453 (임원)
8. 신청마감 : 1984년 6월 23일
9. 준비물 : 슬리핑 백, 필기도구, 따뜻한 옷, 운동화, 츄리닝, 세면도구.
10. 기타 : 학생들은 팀으로 조직되며 각 팀장과 같이 행동하고 엄한 품행규칙으로 Camp를 진행시킴.

각종 영문 및 한글 인쇄  
린우드인쇄소  
(206) 775-7667

세계피아노사  
365-5540  
11325 Roosevelt Way N.E.  
Seattle, WA 98125

## CAMP CASEY SCHEDULE 1984

### 6월 28일(목요일)

- 9:00(오전)- 스쿨 버스로 Camp 를 향하여 출발
- 11:30-12:00 Camp 도착, 기숙사(숙소)배정
- 12:00- 1:00 즐거운 점심식사(과자준비)
- 1:00- 5:00 Classes (게임,전적지 견학,Beach art, Folk Dance, Camp Song)
- 5:00- 6:30 저녁식사(Camp Casey 제공)
- 6:30- 7:00 초빙인사 강의
- 7:00- 8:00 Crazy Olympics
- 8:00- 9:00 Movie (한국에 관한 교육 필름)
- 9:00- 9:30 Refreshments
- 9:30- 취침(소등)

### 6월 29일(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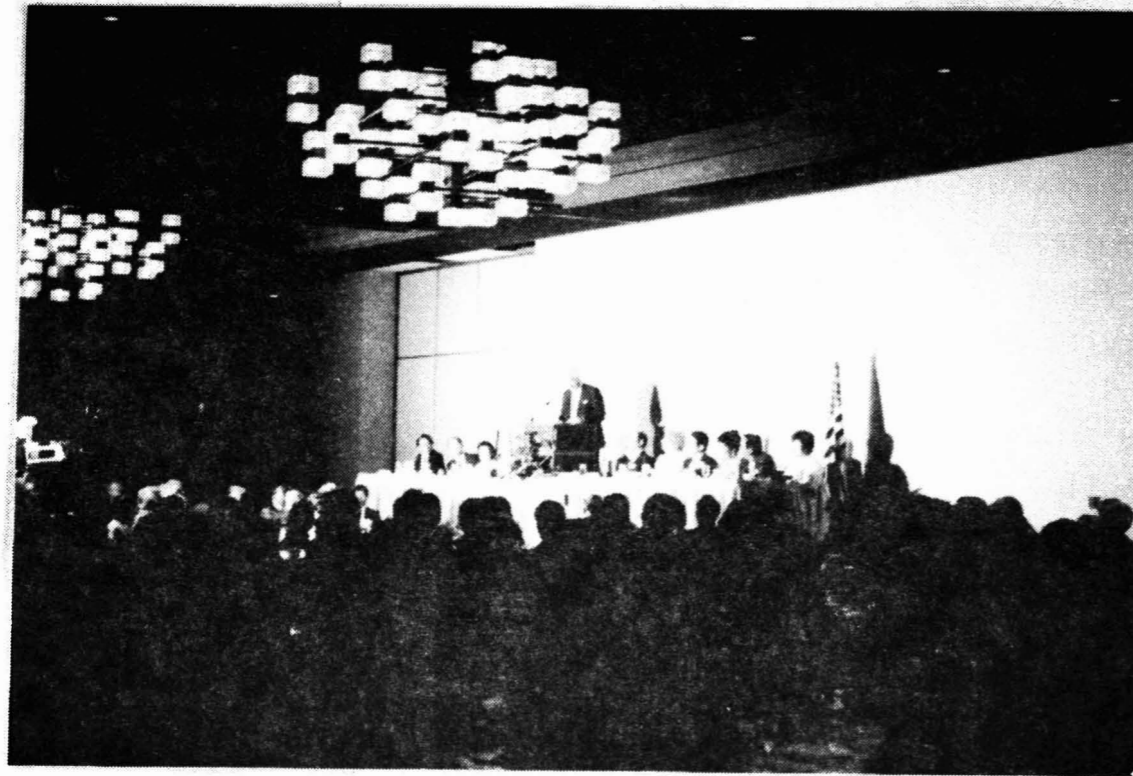
- 7:00- 9:00 기상, 운동, 세면, 아침식사(Camp Casey 제공)
- 9:00- 9:30 유명강사 강의
- 9:30-10:00 Walk on Beach
- 10:00-11:00 Watch Drivers
- 11:00-12:00 Send Castle Contest
- 12:00- 1:00 점심식사(Camp Casey 제공)
- 1:00- 5:00 Classes (게임, Fort Casey, Beach art, Folk Dance, Camp Song)
- 5:00- 6:30 Dinner (저녁식사 - Camp Casey 제공)
- 6:30- 7:00 유명강사 강의
- 7:00- 8:00 연극 및 장기자랑
- 8:00- 9:00 Camp Fire
- 9:00- 9:30 휴식 및 세면
- 9:30- 취침

### 6월 30일(토요일)

- 7:00- 7:30 운동 및 세면
- 7:30- 9:00 아침식사(Camp Casey 제공) 및 숙소정리(청소)
- 9:00-10:30 Scavenger Hunt
- 10:30-11:00 폐회식
- 11:00- 집을 향하여 출발

한국의 날 행사 성료

지난 4월28일 오후6시부터 시애틀공항앞 Red Lion Inn 에서 베푼 한국의날 행사는 성대히 끝마쳤다. 이날 500여명의 많은 내외귀빈 및 한인교포사회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정기 임원회의

5월5일 오후6시부터 한인회 사무실에서 5월중 정기임원회를 열고 (1)교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문제 (2)교민들의 이민생활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등에 대해서 중점 논의한바 있으며 이자리에서 회장단은 한국의날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한 임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했다.

신임 총영사 인사

5월9일 오후6시 한인회 회장단 및 이사,임원들은 주 시애틀 한국 총영사관을 방문 5월1일 새로부임한 안세훈 총영사와 인사를 나눈후 30여분간 환담한바있다.

신임 총영사 한인회관및 한글학교 방문

5월18일 오후6시30분부터 8시까지 안세훈 신임 총영사는 한인회관을 방문하여 회장단 및 이사,임원들의 영접을 받았으며 84년도 한인회 사업계획 내용을 청취한후 한글학교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들을 돌아보고 교사 및 학부모들과도 환담한바 있는데 안세훈 총영사는 특히 2세들에대한 교육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함.

페더럴웨이 축구 회원 모집

(FWAK SOCCER CLUB)

Federal Way 를 중심으로한 인근도시 Auburn 그리고 Kent 에 거주하시는 교포들의 취미와 건강, 그리고 친목도모를 위한 주말 축구회가 발족하게 되었으니 이에 가입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빠른시일 안에 아래의 연락처로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이 정 언

Lee's Tae Kwon Do 장  
31405 18th Ave. S. #5  
Federal Way, WA 98003  
839-3055, 838-8934

참고 : 단 연령은 30세 이상에 한함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우체국시험을 위한 강의

좋은 보수와 Benefit 가 있는 우체국 직원이 (distribution clerk, carrier clerk) 되시길 원하시면 우선 좋은 성적으로 시험점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아래와같이 강의를 하오니 많은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5월4일 오후7:00-8:00 개강  
(월 4회 매주 월요일)

장소: 한인회관

경비: \$40.00(교재포함)

연락처: 488-7453(윤영임)

정매인 전도사 "성가의 밤"

시애틀 한인형제교회 정매인 전도사는 한국일보 휴스턴지사 초청으로 1984년 6월 17일 오후8시 휴스턴에서 "한국일보 휴스턴지사 10주년기념 성가 의밤"을 가진다고 합니다. 반주는 이혜연 집사가 수고하게 됩니다.



# 한국 선교 100주년의 회고와 그 전망

위싱턴 한인루터교회 김동진목사

"말씀은 곧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한국 땅에 심어져 많은 결실을 맺기까지는 수란 우  
 어극절도 많았지만 한국교회 1세기에 이르도록 한국의 현대사속에 퍼고 틀어온 흐름은 때  
 마침 밀어닥친 구변하는 세계정세와 함께 양단된 극조를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은 도리어 이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디딤돌이 되었음을 부인할자는 아무도 없는 줄 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는 제2차대전 직후 해방과 더불어 찾아온 이데오르기의 양극간의 냉전은 곱기야  
 냉각과 속에는 몸살이나 캄도마위에 놓여진 생선과도 같은 동진동화의 운명을 우려조국  
 이 빛을 끈이 없던중 아닌밤중에 흉두꺼비로 얻어맞은 6.25의 비극은 천재사상 가장 그 유  
 태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얼룩진 전한피의 한페이지를 메꾸었으니 여기서 한국은 기  
 획생의 제물이되어 500만 동포의 실향민과 100만이상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가 가장 짧은 기  
 간동안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을 입게된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조상때  
 도부러 물려받은 재물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돈화 되었으며 생명의 허무상을 아니느낌테야  
 아니느낌수가 없는 뼈저린 체험을 피부로 느끼게 되어 그 태도 이 목숨이 부지했으니 살아  
 가야지 하면서도 이 목숨만을 위한것이 아닌 다른 영원한 삶에대한 동경을 하게끔 부채질한  
 근원적인 염심점을 신앙의 차원으로 돌려 놓았으니 어떻게보면 자연적인 추세를 하겠단  
 그러기에 정말로 전도를 누가 제일 많이했나 물으면 공산당이 많이했다 싶을 정도로 필자  
 부러가 이북 고향땅에서 속칭을 당하지 않았던들 과연 지금의 이같은 끈지 않았을것이고 보  
 면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인의 심정속에는 알지못하는 사이에 이 고달픈 생활들이 세  
 상에서 못 누렸으니 저세상에 가서나마 누리자는 종교성의 심정으로 뒤바뀌게 되었을뿐 아  
 니라 지니고있는 재산이 신앙행위에 있어서까지 하나의 이윤 좋은 정신적인 투자형식으로  
 부가되게된것이 사실이다. 어떻게보면 이것이 세계에서 제일 헌금 많이하는 교회로 등장하  
 게끔한 근원적인 원인이 되었을려지 모른다. 그러기에 헌금항목도 한국의 교회가 제일 많  
 을뿐 아니라 헌금액도 그 단위가 엄청나 아예 헌금액조차 밝히지 않는 교회도 있다하니 세  
 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현재 1세기밖에 안된 한국에 있다는 것은 우연한일이 아니라하겠다.  
 그러면 한국교회 왜 그토록 급성장하게 되었을까? 첫째는 한국이 처했던 상황이 그  
 러 결과를 가져다 주었고, 두번째는 헌금이 많이 거치는 교회로서 경제력의 질적자로 등장  
 게 되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한국은 경제체제를 이룬 국가로서 황금만능주의가 그 태도 등  
 하는 국가이다. 교회가 여기에 편승되어 외면상으로는 크게 부흥했다하나 내면으로는 부패  
 의 독소가 도사리고 있음은 바로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또 한가지  
 과과할수 없는것은 한국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미국과의 깊은 유대를 맺은 우방국가로서 모  
 든 문화, 과학문명의 풍로가 미국이었다는 점도 빼놓을수 없는 큰 공헌이라 하겠다. 특히  
 미국은 개신교의 산파지로서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들의 고향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더욱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은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펼쳐질 또 한세계의 장은 어떻게 이루어질것일까? 100년이되면 나무에  
 따라 고목나무에 끼어드는 나무가 있기는 하나 오히려 어떤나무는 이때부러 한참 성숙기에  
 접어드는 나무가 있듯이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지금까지 자라왔던가에 더욱 중요할것은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이 순간을 더 묻고 계신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처해 나아가  
 는 또 다른 한세계의 기본자세를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수성에 부리를 내며 과감하게 실천  
 해 나아가는 일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것을 강조하고싶다. 다시말하면 종교의 진리성을 따  
 붙까지 밝음으로 전하는일과 그리고 "세계명을 주노니 곧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말씀이  
 운몽에 배어 전자의것은 전도하는 일에서 찾아야하고, 후자의것은 실천해 나아가는 생활인  
 의 모습속에서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가 한갓 구호나 의식에만 치우치지 말아  
 야 할 이유가 여기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같이 꼭 명심해야 할일이 하나있다.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철저한 자기부정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점이다. 이 고티란 내가 차지해야할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자기의무  
 를 앞세워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길밖에 또 있으랴 싶다. 권리와 권리끼리 서로 부딪치면  
 언제 어디서나 싸움과 시비만 벌어지게 되어 있으니 의무와 의무끼리 부딪치면 사람만 동  
 하게끔 되어있는것은 물이 아택로만 흐르는 일변도의 진리가 불변하는것과 같다.

굳건으로 한국선교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에 더욱 답리는 말에 채찍이 채대로만 가해  
 진다면 지난 100년간은 염심으로 심었던 계기로 돌려 버리고 또 다른 한세계는 기쁨으로  
 거뻐드리는 양찬 열매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는 계기가 되어지리라 믿는다. "미운 자  
 식에게는 떡 한개를 더 주고 고운 자식에게는 때 한개를 더 주라"는 많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한다. 기독교의 앞날에 더욱 큰 진진이 있기를 하나님외 기도와 함께 기도 드  
 리며 아울러 진심으로 한국선교 100주년을 축하해 마치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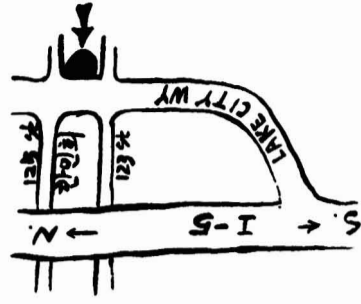
## SUN TROPHY CO.

그동안 찾아주신 고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사랑하시고 찾아 주십시오.

취급품목 : 트로피, 상패, 기,  
 케너트, 실코인쇄  
 범퍼스트릭 (전도용)

주소 : 12336 Lake City Way NE  
 Seattle, WA 98125

전화 : 367-4432 (가게) 363-9547 (집)  
 Tacoma: 588-9222



한인회비 내신 분들

(84.5.8.현재)

|     |       |                   |       |
|-----|-------|-------------------|-------|
| 최기영 | \$ 20 | 임광희               | \$ 20 |
| 유해운 | 20    | 심상국               | 20    |
| 엄도승 | 100   | 허경순               | 10    |
| 김학근 | 10    | 진명희               | 20    |
| 김영삼 | 20    | 김현길               | 20    |
| 이상량 | 20    | 김덕근               | 50    |
| 백영수 | 20    | 이경숙               | 20    |
| 이호섭 | 20    | 이진                | 20    |
| 이신남 | 20    | 김도욱               | 20    |
| 양동익 | 20    | Chin Shook Hughes | 10    |
| 임순기 | 20    | Seung Ku Lee      | 20    |
| 박영준 | 100   | Yil Sung Oh       | 20    |
| 이정남 | 20    | Unche Chong       | 20    |
| 이정연 | 20    | Kyu Ha Lee        | 20    |
| 백용기 | 20    | Hong K. Kim       | 20    |
| 김상철 | 100   | Han Z. Park       | 20    |
| 김관남 | 20    | Young J. Lee      | 20    |
| 박춘환 | 20    | Joon Song         | 20    |

이상 36명

한국의날 행사에 찬조하신 분들

|                |         |               |       |
|----------------|---------|---------------|-------|
| 엄도승 (한인회 이사장)  | \$2,000 | 이현진 (한인회 부회장) | \$300 |
| 홍인표 ( " 부이사장 ) | 1,000   | 곽종세 ( " 이사 )  | 200   |
| 오계희 ( " 회장 )   | 1,200   | 조성욱 ( " 전회장 ) | 150   |
| 이순모 ( " 부회장 )  | 500     | 김홍식 (삼미사 회장)  | 500   |
| 신호범 ( " 이사 )   | 500     | 주시애를 총영사관     | 1,000 |
| 이동립 ( " 이사 )   | 300     | " 한국외환은행      | 300   |
| 김관남            | 50      | 김여행사          | 100   |

합 계 \$8,100

찬조금 박건홍 20

한국의 날 행사 경비 내역

(1984.4.28.)

| (수입 내역)     |             | (지출 내역)                |             |
|-------------|-------------|------------------------|-------------|
| 이사진 찬조금     | \$4,000.00  | Hotel 경비               | \$8,755.55  |
| 회장단 찬조금     | 2,000.00    | 510(좌석)×13.75=7,012.50 |             |
| 일반 찬조금      | 2,100.00    | State Tax(7.9%)        | 546.97      |
| Ticket 판매대금 | 5,080.00    | Service Gratuity(15%)  | 1,051.87    |
|             |             | Coat 보관료               | 45.28       |
|             |             | Vip Bar Drink          | 77.37       |
|             |             | Hotel Photo Sound      | 21.56       |
|             |             | Band 연출대               | 800.00      |
|             |             | 무대연출 준비금               | 250.00      |
|             |             | 확본대금                   | 122.97      |
|             |             | 선전용 프스커                | 245.00      |
|             |             | Ticket 및 Program 인쇄    | 205.00      |
|             |             | 섭외 준비금                 | 52.29       |
|             |             | Amp 및 조명기구대금           | 276.80      |
|             |             | 사진 및 팔름현상료             | 93.15       |
|             |             | 일반준비용 잡비               | 105.12      |
|             |             | 한인회 재정 이월금             | 2,274.12    |
| 수입총계        | \$13,180.00 | 지출총계                   | \$13,180.00 |

**하바 하바 비디오 및 사진관**

**비디오테이프 대여**

각종 한국영화 · 연속극 · 시극 · 군예  
및 다양한 프로

●출장 촬영 환영●

존경하는 교포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83년도에도 많은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돌아오는 새해에도 계속적인 지도 편달 바랍니다. 성심 성의껏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결혼 · 약혼 · 돌 · 회갑사건  
영주권 · 여권 · 시민권사건  
각종연회 및 파티사전에  
반합니다.

5610 SO. YAKIMA AVE. TACOMA, WA. 98408

TEL: (206) 475-6226

# 1984년도 모국 하계 학교 학생 모집

1. 1984년도 모국 하계 학교 학생 모집 요강을 공시하오니 많은 학생이 모국 하계 학교 교육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 계획
  - 가. 교육 일시 : 중, 고, 대학생 1984년 7.3 - 7.16. (2주간)
  - 나. 교육 담당 기관
    - \* 중학생 : 서울교육원  
(서울 종로구 사직동 27-4 전화 720-7663, 7664)
    - \* 고교생 : 호국교육원  
(경기도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232 전화 1349-5752, 5753)
    - \* 대학생 : 화랑교육원  
(경주시 배남동 산56번지 전화 0561-3-2247)
  - 다. 제출 서류 : 지원서 1통 (소정양식)
  - 라. 제출 기간 및 장소 : 1984년 5월 25일(금) 주시애틀 총영사관  
2033 6th Ave. 1125 UAL Bldg.  
Seattle, Wa. 98121 (전화: 682-0132, 0133)
  - 마. 경 비 : 항공료 - 왕복 여비 자비부담  
교육 경비 - 자비 (1인당 \$300 미불)  
교육 담당 기관에 개별적으로 납부
  - 바. 입 국 : 개별 입국 - 1984년 7월 3일(입교일) 11:30분까지 서울 대학교  
재외 국민 교육원에 집결, 교육 담당 기관의 안내를 받음.  
단체 입국 - 교육 담당 기관에서 공 항 영 접 안내 및 인출을 담당함.
  - 사. 참고 사항 : 상세한 내용은 주시애틀 총영사관으로 문의 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206-682-0132, 0133) 끝

**꽃** 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모든 애경사에 전화만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꽃에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디모인스꽃집 824-5920, 밤 243-5160

**홍인표 신경·정신과 전문의**  
 901 BOREN AVE.  
 CABRINI TOWER #707  
 (206) 587-5747, 587-3748

# "유년(幼年)의 바람"

김희자

시름이 안개처럼 밀리는 날은  
 유년의 뚝로 가 보십시오.  
 잊혀진 세월 한 끝 빛살로 펼쳐지고  
 바람 한자락 신선히 불어 미몽(迷夢)을 깨워줄  
 청정한 뚝 앞에 그대 서 보십시오.

의 저변(底辺)으로 고여드는 허작의 목마름  
 그 깊이 깊은 고뇌의 심연에서  
 우리가 견질것은  
 허무와 상삼을 잠 재우고  
 우리가 다시 견져야 할 것은  
 그물에도 새지 않는 몇개의 꿈,  
 매물뒀던 손후(順厚)한 사랑 한 닢,  
 그리고 비상(飛翔)에의 절건 희원 뿐암을.

유년의 뚝에는 잎잎에 피던 소망이  
 찬연한 햇살속에 그대로 남아 있음을 보십시오.

다만 인내하고  
 다만 손옹하며 살아야 할 우리 세월에  
 적빈(積貧)의 공복(空腹)과도 확신하고 살아야 할 우리 세월에  
 초성으로 이르는 층계는 그리 길고 길어서  
 미진(未盡)의 가슴 매양 회오로 남는 것을.

때로 그대 목숨 불뚱불로 아파오면  
 무망(無望)의 허닐 안으로 바람이 불게 하십시오.  
 맨살의 바람, 바람의 진실이 간절히 손 잡아 주면  
 우수의 어둔 나락 헤쳐내고  
 막알광개 상흔 씻어 보십시오.

그대, 허상의 쓸쓸함 거두시고  
 유년의 바람 곁에 서 보십시오.  
 바람의 위무(慰撫),  
 바람의 해일이 그대 뜨락에 다시 넘치게 하십시오.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ENGLISH PAGES  
edited  
by  
Daeshik Yu

The following articles with opposing views on interracial marriages appeared in Korean in the April 11, 1984 issue of the Korea Times Seattle Edition under the heading, "Are the International Marriages of the Second Generation Koreans to be Discouraged?"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ENGLISH PAGES presents the translated version of these articles, hoping that more young Korean Americans will have a chance to read about what their parents' generation is thinking about their future.

"Let's Eliminate the Smoldering Coal of Discord"

By Chang Soo Kim Trans. DY

Of all the difficult things encountered in life, what is particularly difficult is to find an ideal partner with whom one overcomes many hurdles to reach the goal of a successful marriage and a happy and rewarding life. For our sons and daughters who grew up in America, marriage involves a variety of delicate problems arising from the special cultural and social settings, which we [the first generation] have not experienced. Thus, it is not easy to marry the children off in accordance with parental wishes.

Let us first look at the essence of marriage itself. Marriage is not an idea or concept; it is, rather, a reality. It is a process in which the intellectual and emotional needs and desires of man and woman are expressed and carried out. It is continuity of life based on mutual help. To lead this very practical individual life, a mutual relationship which imposes no unreasonable risks is a must. Exchanges of the most intimate emotions possible in the relation between man and woman must be carried out physically, psychologically, and above all, naturally. A noble [platonic] love or momentary incidental arousal of sexual desire might enable a person to go beyond national boundaries in choosing his or her spouse. But marriage is not a momentary game or drama. We know it for an undeniable fact that a marriage cannot go on simply on the basis of a philosophic notion or literary sentimentalism because it is an actual process whereby a man and a woman go on interpreting the meaning of life and solving its problems through observations while the couple pursue each other's emotions and ideals. Married life is a process of worldly realism-- a long drawn-out process during which one grows and matures, forming a system of values including moral and religious convictions.

It is my belief that a way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 happy marriage is to eliminate or minimize the factors that cause discord or illogical conflicts. Let us look at the obstructive elements which international and interracial marriages may bring to the all-important married life of our children. The first on the list would be the difficulty involved in delicate and subtle

feelings in a natural manner. The difference in language and in the way of thinking creates a communication problem in conveying emotions and feelings that are absolutely important to one's self. It is all too easy to imagine the severity of loneliness and alienation if the spouse, a partner who shares all things from the nearest distance, does not accept them with an open mind. The second category of obstacles would be different customs and life styles and eating habits. Habits and life styles form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do not change so readily as one would like to think they do although, in theory, they may seem simple enough to overcome. A marriage cannot last if one has to hold back one's own feelings simply for love of spouse or if one has to suppress one's impulses for the sole purpose of satisfying the other person's comfort and taste. It is not easy to adapt to a life style that causes one to feel tension and uneasiness, which at times bring about a feeling of dislike or even hatred. While these difficulties can be avoided if rationally examined, it may be too late by the time one begins to feel disappointed by them. Finally, there is a familiar example we frequently see around us. We have often heard about the bitter experience of married couples who unavoidably go through conflicting 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attendant sense of alienation.

The second generation Asians are often called "bananas"--yellow on the surface but white inside. The analogy obviously refers to the second generation Asians whose yellow skin contains in it the American way of thinking.

Many second generation Asians seem to think that they can adapt themselves to the hierarchical society dominated by white Americans through interracial marriages, especially by marrying white Americans. But the banana analogy is a good reflection of reality that is cold and cruel. It seems more reasonable to improve the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and regain the basic rights on the basis of the commonality of race.

The "Banana" generation is said to be moving into a "Bee" generation. The Bee generation refers to a minority group who flap their wings and shoot the darts of sting, if necessary, to let the world know of their existence. America is a society with many good things, but it is also a society with many dilemmas. The rich culture of the Korean race, the virtue of humility, and the beautiful traditions and good customs, and the stable family system-- are not these important legacies of the Korean heritage absolutely necessary for our life in America?

"Nationality and Race are not Invincible Obstacles"

By Lina Lee Trans. DY

While living in America, you find yourself different in a number of ways. This sense of being "different" from others who surround you comes from the cultural differences that Korea and America have developed throughout their history. I am sure every Korean has at one time or another had the experience of being stunned by "the American way of thinking." But with the passage of time, one begins to nod with some understanding to the American way of living. This is because Koreans and Americans are alike in that they are human beings.

The commonality of humanity is what makes it possible for Koreans to live in America, in Japan, in France, or anywhere else, and it proves that cultural differences can be assimilated into new habits. Furthermore, there are many people who hold vastly different value systems with a homogenous society like Korea. Although in every society there is a common denominator of values, which many of its members share,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re is only one set of cultural values. It would not be too big an exaggeration to say that without these different values, the continuous progress of mankind would have been impossible.

Marria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cisions one makes in one's life. In whatever society you are brought up, your personal philosophy joins forces with your unique individual values, and they serve as the criteria in choosing your life partner. The reason why choosing a spouse brings about considerable difficulty both to young people of marriageable age and to their parents is that the immigrants live in a society which is neither Korean nor American. They live in a sub-culture with its own peculiarities. The world of immigrants is a dynamically changing society with a mixture of many different values. Some insist on a thorough acculturation based on the American way of thinking. Others argue for a firm preservation of Korean culture. And there are still others who favor a happy balance between the two. Because of these wide ranging values, the choice of a spouse in the immigrants' society becomes far more complex than in a relatively secure society with less dramatic changes, making the choice all the more difficult.

As a parent whose children have reached a marriageable age, I frequently come upon other parents agonizing over the problems involved with marrying off their children. Time and time again since childhood, I too have heard about the pride and self-respect of Koreans as one homogenous race. An overriding concern for the parents here is "how to marry our children off to Koreans. How can we discourage the young people from marrying out?"

But some of the parents tend to carry their wish too far, turning their "wish" into an uncompromisable goal. Up until now, in Korean eyes, international marriages have always been the same as marrying G.I.s. And this equation, "international marriages equal GI marriages," seems to be responsible for the tendency to look down upon international marriages. This kind of attitude creates no small problem in the immigrant society, which stands mid-point between American society and Korean society.

What we should guard against is the way of thinking that declares: "international marriages are absolutely out of the question," or "the difficulties involved in international marriages are insurmountable, therefore, all international marriages should be discouraged by all means."

Insisting on marrying their children off to Koreans, many parents bring brides and bridegrooms from Korea. But the difference in cultural environments and customs--the difference between two ways of life in Korea and America--will undoubtedly become obstacles to their becoming happy couples.

In my own case I came to the United States as a student and married an American man. I had a lot of problems at first with food and language. But

my husband was quick to understand at the utterance of a single word what would have taken me several sentences to express myself. My language learning process helped assure and enhance our mutual affection. The food problem was solved in the same way. At first, he didn't like the smell of kimchee, but after tasting a piece of it, he came to like it even more than I, and while learning each other's ways, we came to love each other more.

This is not to claim that international marriages are a panacea. I, too, would like to encourage my children to marry Koreans if that's possible. Though an American himself, my husband, too, keeps saying to the children, "Korean women are the best wives." The real problem, however, starts when parents begin to insist and even demand that the children marry Koreans even when they find the candidates unacceptable for marriage partners. A happy marriage depends, not on the nationality or the race of the individual, but rather on the common grounds of habits and environment. So long as customs and socializing processes are not drastically different, one's nationality and race not such great obstacles.

I might add in closing that it is also one of the great responsibilities of the parents to teach young people of marriageable age how to be responsible for the decisions they make for their own lives.

DENTIST

**치 과** PHONE 778-0707

**RONALD D. CANTU' D.D.S.**  
치과의사 로날드 D. 켄투

6226 BUILDING SUITE 2-A  
6226 196TH S.W.  
LYNNWOOD, WASH. 98036

이 광고를 지참하시는 한인에게  
15%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15% off**

**O.K. 운전 학교**

- ※ 교포가 운영하고 교포가 지도하는 운전학교
- ※ 운전 초보자에게 저렴한 교습비로 지도
- ※ 전문적인 지식과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도
- ※ 최단 시일내에 운전면허증 취득
- ※ 필기 및 실기시험 100% 보장
- ※ 거리 및 지역에 제한없이 출장지도
- ※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쉽게 면허증 받을수 있음

◎ 전화문의 및 상담 환영

운전 학교: **(206) 775-1588**

집 : **(206) 771-3680**





State of Washington

# PROCLAMATION

WHEREAS, the treaty, which was signed on May 22, 1882,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WHEREAS, the Korean Consulate ratified ties of the friendship between our peoples and reinforced a common dedication to the principle of peace and freedom; and

WHEREAS, since 1977, Washington state trade with Korea has increased at a rate greater than our trade with any other country; and

WHEREAS, regularly scheduled non-stop air service between Seattle and Seoul provides for the rapid exchange of tourists, businessmen, and cargo; and

WHEREAS, Washington State, through the Friendship Force Program, has had several large group exchanges of people with like minds and interests; and

WHEREAS, commercial ties between Korea and Washington State have rapidly expanded with numerous Korean businesses locating offices in Washington State; and

WHEREAS, there is a growing Korean community in Washington State and a need for continuing friendly ties between the two communities;

NOW, THEREFORE, I, John Spellman, Governor of the state of Washington, do hereby proclaim Saturday, April 24, 1984, as

KOREAN DAY

in Washington State, and I invite all citizens to join in this observance.

Signed, this 26th day of March, 1984.



*John Spellman*  
Governor John Spellman

Office Of The Mayor  
City of Seattle

Charles Royer, Mayor



# PROCLAMATION

WHEREAS, friendly and cordial relations have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for more than 100 years; and

WHEREAS, the growing trade with Korea is important to the economic health of our city; and

WHEREAS, the people of both nations share a common belief in the value of human dignity; and

WHEREAS, the people of Seattle believe deeply in the enormous value of having many strong ethnic communities in our city; and

WHEREAS, the more than 10,000 Korean Americans who live and work in the Seattle area have made remarkable contributions to the economic, social, and educational, and cultural life of our city;

NOW, THEREFORE, I, CHARLES ROYER, Mayor of the City of Seattle, do hereby proclaim April 28, 1984, as KOREA DAY in Seattle in tribute to our many Korean American friends.



*Charles Royer*  
Charles Royer  
Mayor

“그리움”

남경애

물 막은 풀잎이야 .....

저거얏든 빗소리도

아스라이 지나가고

간지러운 햇빛은 스쳐 지나는 만남이던가 ——.

매미 울음 들리듯

환상에 젖어보니

개울가 버드나무 솔솔 바람도 없는

멋없이 높기만 한 나무사이로 낯설은 하늘만 만나는구나 ——.

잊혀진 등무들아

세월이 가는구나

너랑 나랑 손잡고 그곳에 가자구나

아지랑이 피워 오르는 수평선 바다 보러 ——.

1984년 4월

정확하고 친절한 여행안내

**장여행사**

C AND C TRAVEL SERVICE

IATA, ATC, PATA 회원

• 국내외 항공권매 (일본도 가능) • 각종 여행수속 • 공항업무  
 •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 • 호텔, 렌트 카 예약 • 이민 업무 안내  
 • 각종 번역 및 통역 • 항공 보험

**523-7057**

\* 24시간 \*

10212 5th Ave. NE #220 SEATTLE, WA 98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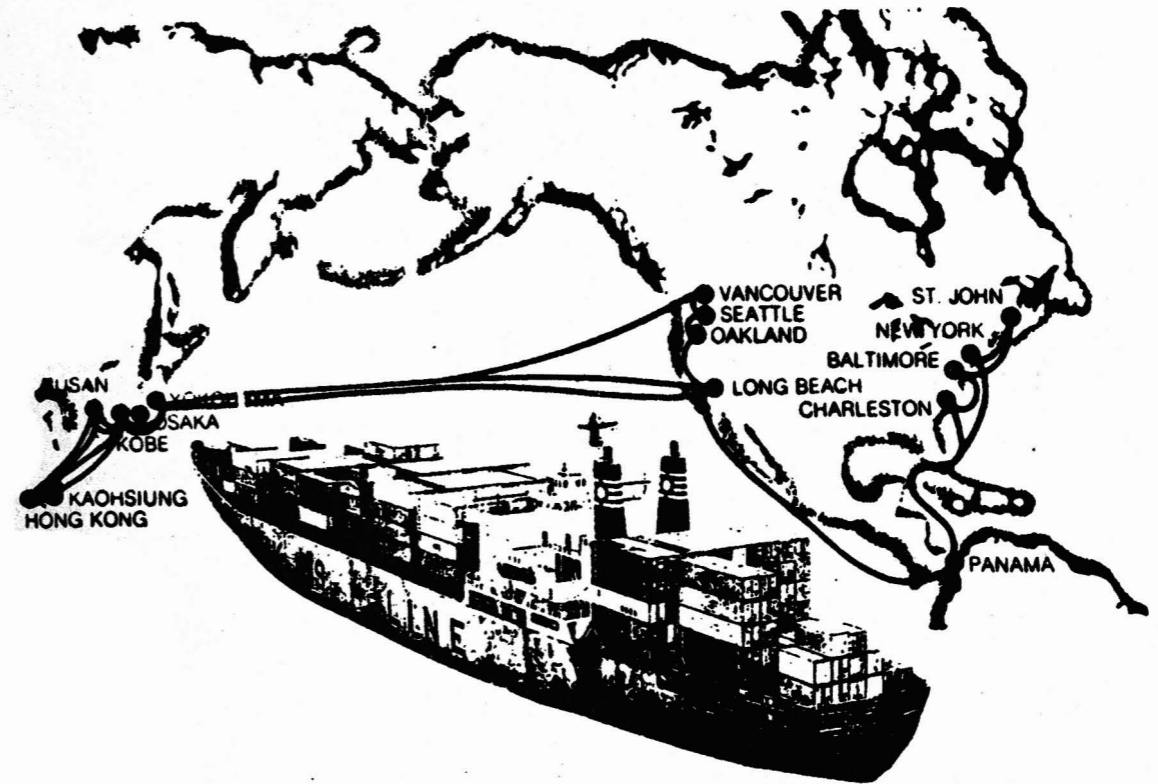
한국 해운의 기수

**K.S. LINE**

- 수출입 화물
- 귀국 이삿짐
- 창고업
- 통관업무

미국과 동남아를 6일 간격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귀택의 이삿짐은 부산·서울 편리한 곳에서 14일만에 통관, 찾으실수 있습니다.



(206) 625-1960

2121 Fourth Avenue Suite 2250 Seattle WA 98121



大韓船洲(株)

KOREA SHIPPING CORPORATION

롱비치 지점 (213) 437-0431  
 뉴욕 지점 (212) 422-5050  
 샌프란시스코지점 (415) 777-2000  
 시카고 지점 (312) 893-7500  
 휴스턴 지점 (713) 227-3261

밴쿠버사무소 (604) 669-2439  
 포틀랜드사무소 (503) 226-9818  
 볼티모어지점 (301) 727-3559  
 찰스턴지점 (704) 365-4582

# 박화릉

각종 표구 액자 전문  
서예 수예 동양화 평풍제작판매  
각종고급 서양화 특별엄가판매



※ 초상화 전화문의환영

## 간판

한글 한문 영문 아크릴 프렌카드  
각종 특수체 및 조각간판제작  
사무실 **762-5410**  
집 **242-6801**  
월~토 오전 9시~오후 5시

1515 Roxbery S. W. Seattle WA 98106  
(중앙식품 근처)

# 한인회보 5월호

### ※ 편집후기 ※

많은 원고들을 보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린다.  
지면 관계로 접수된 원고중 이번호에 게재치 못한  
것이 있는바 다음호에는 꼭 실려드릴것을 약속한  
다.

고민사회에 널리 알려야 할 사항이나 각종단체및  
기관의 동정및 행사계획등은 편집실로 연락주시면  
본 회보를 통해서 소식및 동정으로 무료로 홍보해  
주고 있는바 많은 이용을 기대한다.

4월호에 한인주소록 정비에 관해서 알려드린바와  
같이 계속해서 협조하여 주시면 2중 배달되는 가정  
이나 또는 누락되어 배부되지 않는 가정이 없이  
전 고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한인회보가 배  
부되도록 합심것을 다짐한다.

## 이규영계리사

귀중한 재산을  
소중히 정리해드립니다.

- ※ 컴퓨터로 장부정리
- ※ 퇴직 연금 상담
- ※ 일반 인컴 택스
- ※ 세무상담
- ※ 중소 기업 장부정리
- ※ 공증업무
- ※ 기밀 절대보장

(206) 623-4181/3

2809-4th Ave Seattle, WA 98121

### ◎ 순 한국식 중화요리

## 四川飯店

- 일류 요리사의 순 한국식 진미 요리로써  
성심껏 한인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 짜장면, 짬뽕, 군만두, 양장피집채,  
팔보채, 팔수육, 라조기, 해삼탕, 불고기  
기타 각종요리
- Lunch Special \$3.25
- 김치 무료제공

영업시간  
화~목 11:30~10:30  
금~일 12:00~11:00  
● 월요일은 쉽니다.

★ TO-GO도 합니다.

14614 15th Ave NE SEATTLE  
전화 365-9174

한인회보 1984년 제 5 호  
발행인: 오 계 회  
편집인: 박 승 휘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2611-125th St. NE  
Seattle, WA 98125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 (206) 362-4500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 LEE'S 타이어 및 자동차 종합 정비센터



머플러  
타이어  
브레이크

모두  
완벽하게  
고칩니다

프론트 엔드업라인 먼트 (206) 362-4449

13281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SEATTLE TACOMA

믿고 찾을수 있는

# 류 종합 보험

# Allstate®



• 생명보험

• 교육보험

• 가옥보험

• 건강보험

• 차/보트 • 레크레이션 차보험

• 사업보험 ( 30% Discount 가능 )

• 용자알선 ( 차 · 보트 · 집 )

콜렉트 콜 환영 ( 364-2450 ) 24HRS

**CODY CHANG RYU**

Agent

Sears, Roebuck and Co. Building 내

15711 Aurora Avenue North, Seattle, Washington 98133

Claims 527-5600

Bus. 364-2450 • Res. 362-2510

립우드 TOPRIN 인쇄소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 O. Box 24992 o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 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